

대동가



[해제]

「대동가(大同歌)」는 가정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의 삶과 아녀자의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에 세로로 필사되어 있으며 한 줄에는 6~8자의 한글로 기록되어 총 336행 2596자의 본사와 6행 48자의 부기(附記)로 구성되어 있다. 작자는 부기에 “석기도은 손부언의 몽중여헌 익다혹소 을묘 십월 엽일의 일업난 스람은 초혹노나”라고 하여 손부인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손부인은 “부손향 구 득달흐니 각국스람 모와드니 영익도 초란흐다 초량정의 포를스셔 장스갓탄 저초타니 경성천리 먼먼 길을 춘식간의 당도흐닉”라는 서울까지 병원을 가는 노정으로 보아 부산 근역에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창작시기는 을묘년으로 본문의 ‘영미법덕(英美法德)’ 등의 표현으로 보아 1915년으로 볼 수 있다. 문투는 한문투를 바탕으로 한글투를 적절하게 섞었다. 내용은 여자로 태어나 곱게 자란 후에 천생 배필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고 부녀지도(婦女之道)를 실천하는 모습을 그렸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무신년에 남편이 병을 얻어 서울에 가고 신해년에는 딸아이가 병을 얻어 영결하고 병진년에는 시어머니 회갑으로 잔치를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여 대동하는 모습을 그렸다. 부기에 “비파곡 기록즈니 몽둥스 으히혀 디강이만 불너보닉”라고 하여 이 가사는 비파곡의 곡조를 바탕으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ㄷㄷ가
 ㄷㄷ은 ㄴ가갓노 ㄴ훈존 아라구나
 몽둥의 ㄷㄷ가을 지금흐니 ㄴ기런고
 혼돈흔 천지간의 만물리 숨겨날지
 그둥의 영귀혹문 스람이 웃듬이라
 활동흐난 물이로식
 칠정을 풍슈흐니 히로익락 가진마암
 남여가 다름손야
 ㄴ비록 여조로ㄷ 고ㄷ셔스 드르보니
 인걸은 지령이나 지거짜라 스람나닉
 신나고도 지척지ㄷ 울이춘 잠겨시이
 천룡이 이복와셔 청창산 썩러지고
 역슈가 남을오니 문천강 손것구나
 그둥의 일기지가 손시고가 이안닌가
 처처심심 우리집이 복녹이 무궁흐다
 지벌도 족컨이와 강경이 창ㄷ흐닉
 부지경전 우리부모 흐날갓탄 조이시로
 나올나아 기를적의 남여을 가리손가
 온흔을 부르시며 기갈을 슬퍼보니
 불원심남 원심여로 고이고이 자라닐지
 칠팔식 언문갈쳐 범칙스로 교육혀
 삼오이팔 가족흐니 사방으르 구훈흐닉

그등의 천변으로 조흔비필 가려니니
 괴천선싱 후비조로 남쥬지별 이랑흐니
 흥문교니 증흔어턱 일시의 유명흔집
 여롱여봉 조흔남쥬 요조가절 퍽취하야
 웅웅명안 전안석의 군쥬속여 쪽을짓고
 동방쥬의 흥촉흐니 빅연가기 닉액하직
 지루명월 애우애와 초도부윤 조부조로
 손명히서 먹온마음 천쟁지로 변치마시
 칠뇨시를 뉘가읍노 숨속생이 니로구나
 식월아 임염하야 우지일이 닷첫구나
 갈지업다 갈지업다 이팔종부 갈지업다
 나이노친 거동보소 송지우문 흥난말숨
 너이집의 가거들난 필겨필기 조심하라
 무위구교 옛말숨은 성인의 고훈이라
 여쥬 일평싱의 숨도지도 잇나이라
 범빅스로 조심하여 고금조선 하지말고
 원구지회 잇져들난 이말을 잇마라
 음슈교회 밧든후의 친당을 빅별하고
 기슈천원 멀니건너 구턱을 비분흐니
 문호도 창딴하고 예절이 엄속흐니
 구고님은 은희밧고 군쥬의 던을입어
 휘황천지 이일신이 반석갓치 편흔둥의
 존등흐신 우리장부 천은을 입으시어
 옥골갓치 조흔풍도 당당명스 분명흐다
 단저장 김흔정을 일너로 포칭흐니
 슈등의 기화가치 스오식을 길너니니
 유희장의 고은턱도 비범도 비범하고
 총명영니 조흔쥬지 범스가 썩성흐다
 처비록 여쥬로디 남쥬우벌 가소롭다
 흥영억난 이니영위 흥둥의 가득담아
 여아부여 무양하기 듀듀야야 비려던니
 존물이 무정하고 지신이 시기하야
 익외에 우리소천 니슈유 어더시니
 스인어유 스지득은 공부쥬님 탄식니라
 욱스득 이니심장 천지가 아득흐다
 구초로이 스난것신 기딴심이 잇씨마라
 송인천의 썩을밧다 죽지말고 스라잇셔
 천지신명 축슈하고 스천미불 정성드려

회춘하즈 결심하고 스방으로 구혼하니
편죽도 망켄니와 창공도 무슈하다
기인치물 허난농이 이세상의 얼마려고
빅천간두 목린더시 육칠열을 지닌다가
그간팅이 엇더하며 그고쟁이 엇더하리
어러그러 지닐초의 무신연 당도하야
딕턱으로 쫓밧임오니 철리밧기 써날적의
경성기신 식숨촌이 불일니로 환황하스
날을보고 허신말숨 식어집아 너도가즈
너이가팅 그병시는 서울가면 고치리라
영비법덕 큰병원의 조흔익스 만흐리라
그말듯고 식각하니 가장위훈 이니몸이
독난지도 모르리라
서울리라 늦가기노 울고가난 치황하야
부순향구 득달하니 각국스람 모와드니
영의도 초란하다
초량정의 포를스셔 장스갓탄 저초타니
경성천리 먼먼길을 춘식간의 당도하닉
천후좌우 와호지물 할영역시 잇건마난
운무갓한 이심장이 조흔줄을 모를니라
각죽익스 헛말두고 만첩고쟁 조심하다
일연은 지닌후의 고리로도 짜라오니
거쟁흔 저가턱이 춘풍이 소설하고
온오흔 저춘앵이 닝낙하기 그지업다
슈순한 이기손을 쫓쫓다시 슈십하야
지리한 이세월을 헛도이도 지닌더니
신히연 춘정월을 무슨익히 미쳐던고
천금갓흔 나익여아 무연니 어든병을
십연일 신음타가 천고영결 지어시니
부모될스 그심장이 초마엇지 당홀손가
구곡원정 쉼어지고 숨부이릭 헛터지닉
정신을 쫓쫓초여 미금 규요릇 손익들고
존고시전 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헛시로다 헛시로다 조흔타시 훗시로다
빅옥갓탄 너익치골 진토익 무헛시니
장정단장 왕니이닉 미인초로 쪽얼지고
십여식 넘은것시 고힌으로 죽어시니
춘화춘동 적막중익 원하난니 안니되가

익익방조 너흔몸이 너지식이 업서시니
구원황의 촌바람의 기한이나 업실손가
영익을 못어더서 심명을 바려시니
요경한서 선종흔디 부모원망 안하리요
졸지처인 하여본들 이슈심이 다흠손가
다시오기 심각하니 괴심하기 썩이업다
위로하난 저노파난 친시로 지천이라
손잡고 험난마리 놀갓탄 이인심도
천지간의 스라시니 흠물며 스십춘다
부부서로 절머시니 옥동기즈 탄식하면
춘설전흔 될거시니 부딪마음 기척하야
날을보라 위로하라
손사람이 안만흔들 죽난저를 다름손가
가련흔 우리부모 심스간 으지하고
풍풍무무 이천지의 무정하기 스라가니
죽은거시 머어가고 군즈의 가진소슈
갈스로 위로하다
이리처리 심각다가 조흔슈토 심방하야
이스경영 다시너서 동서포박 당니다가
저스만 모손하너
할일업난 이기척 병주로 다시와서
흥황업시 흔노안즈 세월은 보너즈니
춘하추동 스시절의 무비나의 단심이나
춘풍의 오난여즈 너난어이 즈익이서
종일토록 버리죽아 너즈석은 졸도하면
하일의 오난나워 어난어이 금실조하
종일토록 나난부부 송거생너 흠제하노
추천의 오난홍안 너난어이 윤기잇서
종일토록 가난길의 일향을 지어가며
동고중의 잇난서죽 어너어이 영위잇서
종일토록 쉬즈안고 지랭을 저축하며
울고가난 저가마귀 나익회포 식로와나
어난어이 효성잇서 밤식도록 우느소리
봉포서성 썩일구나
이물도 저러커덧 흠물며 스람이야
숨강오룬 불춤하곤 육친이 무덕하니
고독무의 날갓하니 스히안디 뉘잇실고
무향스로 가난세월 병진연이 닷쳐구나

설동한미 식로지고 기전잉뉴 뒹동하다
이월리라 초꼭일은 존고시의 회감이나
사람의 조식되야 이런경스 당히시니
만슈무강 비난조리 성효될일 마으리랑
노리조히 쏜을바다 오식반의 조어입고
형의부부 동낙홍도 인조생스 될일이오
옹보갓탄 조여길이 전후옹위 흥는것도
인조성호 될거시이요
진슈성춘 만이하야 디연빅결 흥는것도
인조환심 될일이요 고디당실 조이지어
스방청빈 흥는거도 당일경스 조컨만난
외듀범스 부지하니 장단업년 춤이되고
일점혈육 업서시니 슬하경스 훈심하고
형여생의 업서시니 범칙스가 군목하고
져스니 부독하니 존치초님 바이업고
가탁이 험축하니 반기점디 난감하다
그등의 월될일고 예군형데 모혀서니
동아순아 솜도남미 명쥬갓치 크난모양
양등고도 직할식라
부모님 전월되고 만실중의 화기난다
그등의 우수울일 교촌동부 횡투로다
스십남첫 조부모고 디소스의 현철다고
선칭숨아 미서다가 송좌의 좌정하니
고등이라 흥웁시고 툼거리만 존득썩서
범칙초님 은나보고 이리저리 단이며서
소소한 육지미른 거래디로 다먹으니
허다손님 시장하다
이갓한 흥화등의 늑논무슨 마음으로
비히가 교집하노
인칭처시 워디몽은 인적서울 글지로다
디몽이야 디몽이야 이니꿈이 디몽이야
황능모의 이비영혼 늑이신식 소문듯고
소송동정 건너왔서 일중비파 손익들고
이십오협 골나이야 늑이몽스 곡조잇저
불명원혼 든논소리 감죽놀늑 기다로니
월빅풍청 이섬하디 동방의 실손울고
병생의 시디치디 정신이 식락하니
극낙세기 이야인가

비파곡 기록즈니 몽둥스 으히하여
되강어만 불너보닉 이곡조 보시난니
이비영기 무너보고 석기도은 손부언의
몽중여흔 익다흐소 을보십월 영일의일
업난사람은 초흐노나
비파곡 기록즈니 몽둥스 으히하여
되강어만 불너보닉
이곡조 보시난니 이비영기 무너보고
석기도은 손부언의 몽중여흔 익다흐소
을보십월 영일의 일업난 사람은 초흐노나

[현대역]

대동가(大同歌)

대동(大同)은 누가 깬냐 내 혼자 알았구나
 몽중(夢中)에 대동가(大同歌)를 지금한 이 누구런고
 혼돈(混沌)한 천지간(天地間)에 만물(萬物)이 삼겨날 제
 그 중에 영귀(榮貴)1)함은 사람이 으뜸이라
 활동(活動)하는 물이로세
 칠정(七情)2)을 품수(稟受)하니 희로애락(喜怒哀樂)3) 가진 마음
 남녀(男女)가 다를쏘나
 내 비록 여자(女子)로되 고대(古代) 서사(書史)4) 들어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5)이라 지거(地居)6)따라 사람 나네
 신나고도 지척(咫尺)7)지되 율이촌 잠겨 있어
 천룡(天龍)8)이 이북(以北) 와서9) 청장산 떨어지고
 역수(逆水)10)가 남(南)을 오니11) 문천강이 생겼구나
 그 중에 일 기지가12) 손시13)고가 이 아닌가
 최취(崔崔)14) 생생(生生)15) 우리집이 복록(福祿)이 무궁(無窮)하다
 지별(地閥)16)도 졸거니와 강경(疆境)17)이 창대(昌大)18)하네
 부저경전 우리 부모 하늘같은 자애19)시로
 나를 낳아 기를 적에 남녀를 가릴쏜가
 온 하늘 부르시며 기갈(飢渴)을 살펴보니
 불원생남(不願生男) 원생녀(願生女)로20) 급게급게 자라날 제
 칠팔세(七八歲) 언문(諺文) 갈쳐 범백사(凡百事)로 교육(教育)하여
 삼오이팔(三五二八)21) 가작하니22) 사방(四方)으로 구혼(求婚)하네
 그 중에 천변(千變)으로 좋은 배필 가려 내어
 괴천선생 후비조23)로 남주지별(南州之閥) 이랑하다
 홍문교리(弘文校理)24) 중한 어택(御澤)25) 일시에 유명한 집
 여룡여봉(如龍如鳳)26) 좋은 남자 요조가절(窈窕佳絕)27) 택취(擇娶)28)하여
 웅옹(雍雍)29) 명안(名案) 전안석(奠雁席)30)에 군자 숙녀(君子淑女)31) 짝을 짓고
 동반자(同伴者)32)에 홍촉(紅燭)33)하네 백년가기(百年佳期)34) 내약(內約)35)할 제
 지루 명월 애우애와 초도(初度)36)부윤(府尹) 조부조로
 산명(算命)37)해서 먹은 마음 천정지로 변치마세
 칠요시(七曜時)38)를 누가 읊나 삼숙생이 내로구나
 세월아 임염(荏苒)39)하여 우재일이 닳쳤구나
 갈 곳 없다 갈 곳 없다 이팔종부(二八宗婦)40) 갈 곳 없다
 나의 노친(老親) 거동(舉動) 보소 송지우문 하는 말이
 너의 집에 가거들랑 필겨필개 조심하라
 무위구교(無違舅教) 옛말씀은 성인의 교훈이라

여자 일평생에 삼도지도(三道之道)41)있느니라
 범백사(凡百事)42)로 조심하여 고금조선 하지 말고
 원구지회 잊엇걸랑 이 말을 잊지마라
 음수교회(飲水交會) 받든 후에 친당(親堂)을 백별하고
 기수천원 멀리 건너 구택(舅宅)을 비분하니
 문호(門戶)43)도 창대(昌大)44)하고 예절(禮節)이 엄숙(嚴肅)하니
 구고(舅姑)님은 은혜(恩惠)받고 군자(君子)에 덕을 입어
 휘황천지(輝煌天地)45) 이 일신(一身)이 반석(盤石) 같이 편한 중에
 존중(尊重)하신 우리 장부(丈夫) 천은(天恩)46)을 입으시니
 옥골(玉骨)47) 같은 좋은 풍도(風度)48) 당당명사(堂堂名士)49) 분명하다
 단저장 깊은 정을 일녀(一女)로 포생(抱生)하니50)
 수중(手中)에 기화(琪花)51) 같이 사오세(四五歲)를 길러 내니
 유희장의 고운 태도 비범(非凡)도 비범(非凡)하고
 총명영리(聰明伶俐)52) 좋은 자질 범사(凡事)가 숙성(熟成)하다
 저 비록 여자로되 남자(男子) 우벌 가소(可笑)롭다
 하해역난 이내 영위(榮位) 흉중(胸中)에 가득 담아
 여아(女兒) 부녀(婦女) 무양(無恙)하기 주주야야(晝晝夜夜)53) 밟았더니
 존물(尊物)54)이 무정(無情)하고 지신(地神)이 시기(猜忌)하여
 내외(內外)에 우리 소천(所天)55) 이주유(移住遊)56) 얻었으니
 사인어유 사질은 공부자(孔夫子)님 탄식이라
 옥 싸다 이내 심장(心腸) 천지가 아득하다
 구차(苟且)로이 사는 것은 기대심리(期待心理) 잊지마라
 송인천의 본을 받아 죽지 말고 살아 있어
 천지신명(天地神明)57) 축수(祝壽)하고 산천미물(山川微物)58) 정성들여
 회춘(回春)하자 결심하고 사방으로 구혼(求婚)하니
 편작(扁鵲)59)도 많거니와 창공(倉公)60)도 무수(無數)하다
 기인취물(欺人取物)61) 하는 놈이 이 세상에 얼마런가
 백척간두(百尺竿頭)62) 목멘 듯이 육칠월(六七月)을 지내다가
 그 간장(肝腸)이 어떠하며 그 고생(苦生)이 어떠하리
 이력저력 지낼 차에 무신년(戊申年) 당도(當到)하여
 대택(大澤)63)으로 뜻 받사오니 천리 밖에 떠날 적에
 경성계신 시상촌(媿三寸)이 불일내(不日內)64)로 환향(還鄉)하사
 나를 보고 하신 말씀 시아집65)아 너도 가자
 너의 가장(家長) 그 병세는 서울 가면 고치리라
 영미법덕(英美法德)66) 큰 병원에 좋은 의사 많으리라
 그 말 듣고 생각하니 가장(家長) 위한 이내 몸에
 죽는 지도 모르리라
 서울이라 누가 괴오 울고 가는 치행(治行)67)하여

부산 항구 득달(得達)하니 각국(各國) 사람 모여드니
 영외(楹外)68)도 찬란(燦爛)하다
 초량정(草梁町)에 표를 사서 장사(長蛇) 같은 저 차 타니
 경성(京城) 천리(千里) 먼먼 길을 순식간에 당도하네
 전후좌우(前後左右) 완호지물(玩好之物)69) 한량없이 있건마는
 운무(雲霧) 같은 이 심장(心腸)이 좋은 줄을 모를내라
 각자 의사 헛말되고 만첩고생(萬疊苦生)70) 자심(滋甚)하다
 일년(一年)은 지낸 후에 고래로(古來路)71)로 따라오니
 거창한 저 가택(家宅)이 춘풍(春風)이 소슬(蕭瑟)72)하고
 온후(溫厚)한 저 촌항(村巷)이 냉락(冷落)하기73) 그지없다
 수선74)한 이 기상(氣相)75)을 차차(次次) 다시 수습(收拾)하여
 지루한 이 세월을 헛되이도 지내더니
 신해년(辛亥年) 춘정월(春正月)을 무슨 액(厄)이 미쳤던고
 천금 같은 나의 여아(女兒) 무연(無緣)히 얻은 병을
 십연일(十連日) 신음(呻吟)타가 천고영결(千古永訣)76) 지었으니
 부모(父母)될사 그 심장(心腸)이 차마 어찌 당할쏜가
 구곡간장(九曲肝腸)77) 굽어지고 삼부이백 흠어지네
 정신을 차차 차려 미금규요를 손에 들고
 존고지전(尊姑之前)78) 죄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허사로다 좋은 듯이 헛애로다
 백옥(白玉) 같은 너의 체골(體骨) 진토(塵土)79)에 묻혔으니
 장정단장(長程單葬)80) 왕래이래(往來以來) 미인초(美人蕉)81)로 짝을 지어
 십여세(十餘歲) 넘은 것이 고혼(孤魂)82)으로 죽었으니
 춘하추동(春夏秋冬) 적막(寂寞) 중에 원하나니 아니 된가
 애애방자 너 한 몸이 내 지식이 없었으니
 구원황애(九原黃埃) 찬바람에 기한(飢寒)이나 없을쏜가
 영약(靈藥)83)을 못 얻어서 생명을 버렸으니
 요경한서 선종(善終)84)한데 부모원망(父母怨望) 안 하리오
 졸지처인(猝地處仁)하여본들 이 수심(愁心)이 다할쏜가
 다시 오기 생각하니 괴씸하기 짝이 없다
 위로(慰勞)하는 저 노파(老婆)는 친시로 지천이라
 손잡고 하는 말이 나같은 이 인생도
 천지간(天地間)에 살았으니 하물며 사십춘(四十春)에
 부부(夫婦) 서로 젊었으니 옥동귀자(玉童貴子)85) 탄생하면
 춘설전한 될 것이며 부디 마음 개혁(改革)하여
 나를 보아 위로(慰勞)하라
 산사람이 안만한들86) 죽은 저를 따를쏜가
 가련한 우리 부모(父母) 생사간(生死間) 의지(依支)하고

풍풍무무 이 천지(天地)에 무정(無情)하게 살아가니
 죽은 것이 먼저 가고 군자에 가진 소수(消愁)87)
 갈수록 위로(慰勞)하다
 이리저리 생각다가 졸은 수토(水土)88) 심방(尋訪)하여
 이사(移徙) 경영(經營) 다시 내서 동서(東西) 포바기 다니다가
 재산만 모순하네
 할 일 없는 이 계책(計策) 병주로 돌아와서
 흥황(興況)89) 없이 홀로 앉아 세월을 보내자니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에 무비나에 단심(丹心)90)이나
 춘풍(春風)에 오는 여자(女子) 너는 어이 자애(慈愛) 있어
 종일토록 보리 짝어 내 자식은 잘도 하며
 하일(夏日)에 오는 나비 너는 어이 금실(琴瑟) 좋아
 종일토록 나는 부부 상거생내 함께 하노
 추천(秋天)91)에 오는 홍안(鴻雁) 너는 어이 윤기 있어
 종일토록 가는 길에 일행(一行)을 지어 가며
 동고(東庫) 중에 있는 서적 너는 어이 연유 있어
 종일토록 쉬지 않고 재량을 저축(貯蓄)하며
 울고 가는 저 까마귀 나의 회포(懷抱) 새로와라
 너는 어이 효성(孝誠) 있어 밤새도록 우는 소리
 반포효성(反哺孝誠)92)뿐이구나
 미물(微物)도 저럴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삼강오륜(三綱五倫)93) 불참(不參)하곤 육친(肉親)94)이 무덕(無德)95)하니
 고독무애(孤獨无涯)96) 나 같은 이 사해(四海) 안에 뉘 있을꼬
 무향사(無享祀)로 가는 세월 병진년(丙辰年)이 닳쳤구나
 설중한매(雪中寒梅)97)새로 지고 개천 양류 맹동(萌動)98)하다
 이월이라 초파일(初八日)은 존고(尊姑)99)씨의 회갑(回甲)이나
 사람의 자식 되어 이런 경사 당했으니
 만수무강(萬壽無疆) 비는 자리 성효(誠孝)될 일 많으리라
 노래자(老萊子)100)의 본을 받아 오색반의(五色班衣)101) 지어 입고
 형의 부부(夫婦) 동락(同樂)함도 이제 생사(生事) 될 일이요
 웅보102)같은 자녀(子女) 길이 전후옹위(前後擁衛)103)하는 것도
 인제 성호될 것이요
 진수성찬(珍羞盛饌)104) 많이 하여 대연보결(大宴補缺)105)하는 것도
 인제 환심(歡心) 될 일이요 고대당실(高臺堂室)106) 좋게 지어
 사방청빈(四方請賓)107)하는 것도 당일경사(當日慶事) 좋건마는
 외주범사(外周凡事)108) 부지(不止)하니 장단(長短) 없는 춤이 되고
 일점혈육(一點血肉)109) 없었으니 슬하경사(膝下慶事)110) 한심(寒心)하고
 형여생애(刑餘生涯)111) 없었으니 범백사(凡百事)112)가 군목하고

재산(財産)이 부족(不足)하니 잔치 차림 바이 없고
가택(家宅)이 협착(狹窄)하니 반개점대 난감(難堪)하다
그 중에 월달일고 예전 형제(兄弟) 모였으니
동아 순아 삼도남매113) 명주 같이 크는 모양
양등114)코도 재할세라
부모님 전일되고 만실중(滿室中)115)에 화기(和氣) 난다
그 중에 옷을 일 교촌 종부(宗婦)116) 행태(行態)117)로다
사십(四十) 남짓 자부(子婦) 보고 대소사(大小事)에 현철(賢哲)118)타고
선생(先生)삼아 뒤편다가 상좌(上座)119)에 좌정(坐定)120)하니
고등(高等)121)이라 하옵시고 퇴거리122)만 잔뜩 빼서
범백(凡百) 차림 몰라보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소소(小小)한 육지미를 거래대로 다 먹으니
허다(許多) 손님 시장하다123)
이 같은 흥황(興況)124) 중에 나는 무슨 마음으로
비회(悲懷)가 교집(交集)하노
인생처세(人生處世) 액대몽은 인적서를 글재로다
대몽(大夢)이야 대몽(大夢)이야 이내 꿈이 대몽(大夢)이야
황릉몽(皇陵夢)125)에 이비(二妃)126) 영혼(靈魂) 나의 신세 소문 듣고
소상동정(瀟湘洞庭)127) 건너와서 일장128)비파(一張琵琶) 손에 들고
이십오현(二十五絃)129) 골라내어 나의 몽사(夢事) 곡조(曲調) 언저
분명 이는 달는 소리 감짝 놀라 기다리니
월백풍청(月白風清)130) 애석(愛惜)하되 동방(東方)에 실슬(蟋蟀)131) 울고
평생(平生)에 시대치대 정신(精神)이 쇠락(衰落)하니
극락세계(極樂世界)132) 이 아닌가

[각주]

- 1) 영귀(榮貴) : 지체가 높고 귀하다.
- 2) 칠정(七情) :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 3) 희로애락(喜怒哀樂) :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4) 서사(書史) :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5)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 태어난 인물이 걸출하고 지역이 영험함. 곧 영험하고 빼어난 지역에서 인걸이 태어난다는 뜻.
- 6) 지거(地居) : 땅의 거쳐.
- 7) 지척(咫尺) : 아주 가까운 거리.
- 8) 천룡(天龍) : 하늘을 나는 용.
- 9) 이북(以北) 와서 : 북에서 와서.
- 10) 역수(逆水) : 물이 거슬러 흐름.
- 11) 남(南)을 오니 : 남으로 오니.
- 12) 기지가 : 가지가.
- 13) 손시 : 이십사시(二十四時)의 열째 시. 오전 여덟 시 반에서 아홉 시 반까지이다.
- 14) 최최(崔崔) : 산이 우뚝하게 섬.
- 15) 생생(生生) : 생기가 왕성(旺盛)함.
- 16) 지별(地閥) : 지체와 문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7) 강경(疆境) : 강계(疆界).
- 18) 창대(昌大) :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
- 19) 자애 :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
- 20) 불원생남(不願生男) 원생녀(願生女) : 아들 낳기를 바라지 않고 딸을 낳기 바람
- 21) 삼오이팔(三五二八) : 15, 16세.
- 22) 가작하니 : 가까우니.
- 23) 후비 : 임금의 아내.
- 24) 홍문교리(弘文校理) : 조선 시대에, 집현전, 홍문관, 교서관, 승문원 따위에 속하여 문한(文翰)의 일을 맡아보던 문관 벼슬. 정오품 또는 종오품이었다.
- 25) 어택(御澤) : 임금의 은택.
- 26) 여룡여봉(如龍如鳳) : 용같고 봉황같은.
- 27) 요조가절(窈窕佳絕) : 여자의 행동이 양전하고 정숙하고 빼어나게 아름답다.
- 28) 택취(擇娶) :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
- 29) 옹옹(雍雍) : 화락(和樂)함.
- 30) 전안(奠雁) : 구식 혼인(婚姻) 때 신랑이 신부집(新婦-)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禮).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흔히 나무로 만든 것을 씀.
- 31) 군자 숙녀(君子淑女) :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과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현숙한 여자.
- 32) 동반자(同伴者) :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 33) 홍촉(紅燭) : 붉은 물감을 들인 초.

- 34) 백년가기(百年佳期) : 백년가약(百年佳約)
- 35) 내약(內約) : 남몰래 은밀하게 하는 약속.
- 36) 초도(初度) : 맨 처음 닥치는 차례.
- 37) 산명(算命) : 운수를 점침.
- 38) 칠요(七曜) : 일(日)·월(月)과 수성(水星)·화성(火星)·목성(木星)·금성(金星)·토성(土星)을 말한다.
- 39) 임영(荏苒) :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거나 일이 되어 감.
- 40) 이팔종부(二八宗婦) : 16세 무렵의 꽃다운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이른다.
- 41) 삼도지도(三道之道) : 사람으로서 부모(父母)를 섬겨야 할 세 가지 도리(道理). 곧 부모(父母)가 생존(生存)했을 때 잘 봉양(奉養)하고, 돌아간 후(後) 근신(謹慎)하여 상제(喪制) 노릇을 제대로 하고, 제사(祭祀)를 정성껏(精誠-) 받드는 일. 삼행(三行)의 도리.
- 42) 범백사(凡百事) :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
- 43) 문호(門戶) : 집으로 드나드는 문.
- 44) 창대(昌大) :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
- 45) 휘황천지(輝煌天地) :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이는 하늘과 땅
- 46) 천은(天恩) : 하늘의 은혜.
- 47) 옥골(玉骨) : 옥같이 희고 깨끗한 골격이라는 뜻으로, 고결한 풍채를 이르는 말.
- 48) 풍도(風度) : 풍채와 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9) 당당명사(堂堂名士) :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로 이름난 선비.
- 50) 포생(抱生)하니 : 안아 기르니.
- 51) 기화(琪花) : 선경(仙境)에 있다는 아름답고 고운 꽃.
- 52) 총명영리(聰明伶俐) :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빠르고 똑똑하
- 53) 주주야야(晝晝夜夜) : ‘주야’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54) 존물(尊物) : 만물을 존경하는.
- 55) 소천(所天) : 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 56) 이주유(移住遊) : 살던 곳을 떠나 딴 곳으로 옮겨 가서 삶.
- 57) 천지신명(天地神明) : 하늘과 땅의 신들.
- 58) 산천미물(山川微物) : 산과 내의 자질구레한 벌레나 동물.
- 59) 편작(扁鵲) : 중국 전국 시대의 의사.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였다. 장상군(長桑君)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한다.
- 60) 창공(倉公) : 본명은 淳于意(前205~前150年)로 한(漢)나라 초기 유명한 의사로 세칭 ‘倉公’이라 한다.
- 61) 기인취물(欺人取物) :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物件)을 빼앗음.
- 62) 백척간두(百尺竿頭) :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危殆)로움이 극도(極度)에 달함.
- 63) 대택(大澤) : 큰 못.
- 64) 불일내(不日內) : 며칠이 걸리지 않는 동안.
- 65) 시아집 : 시아주버니(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 66) 영미법덕(英美法德) : 영미(英美)는 영국과 미국을, 법덕은 법국(法國)과 덕국(德國)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
- 67) 치행(治行) : 길 떠날 여장을 준비함.
- 68) 영외(楹外) : 현관의 밖.
- 69) 완호지물(玩好之物) : 신기하고 보기 좋은 물건.
- 70) 만첩고생(萬疊苦生) : 겹겹이 둘러싸임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
- 71) 고래로(古來路) :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 72) 소슬(蕭瑟) :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73) 냉락(冷落)하기 : 외롭고 쓸쓸하기.
- 74) 수선 :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부산한 말이나 행동.
- 75) 기상(氣相) : ‘기색(氣色)’으로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의 뜻.
- 76) 천고영결(千古永訣)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 77) 구곡간장(九曲肝腸) :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8) 존고지전(尊姑之前) : 시어머니 앞.
- 79) 진토(塵土) :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80) 장정단장(長程單葬) : 매우 먼 길 주검을 하나만 묻은 무덤.
- 81) 미인초(美人蕉) : ‘홍초(紅蕉)’를 일컫는 말로 파초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파초(芭蕉)와 비슷하다.
- 82) 고혼(孤魂) :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넋.
- 83) 영약(靈藥) : 영묘한 효험이 있는 신령스러운 약.
- 84) 선종(善終) : 남의 죽음에 애도(哀悼)의 정을 다하여 조상(弔喪)함.
- 85) 옥동귀자(玉童貴子) : 어린 사내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 86) 안만한들 : 오죽한들.
- 87) 소수(消愁) : 시름을 없애 버림.
- 88) 수토(水土) : 기거할 만한 곳.
- 89) 흥황(興況) : 흥미 있는 상황.
- 90) 단심(丹心)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 91) 추천(秋天) : 가을날.
- 92) 반포효성(反哺孝誠) : 자식이 커서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 93) 삼강오륜(三綱五倫)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 94) 육친(肉親) : 조부모, 부모, 형제 등과 같이 혈족 관계가 있는 사람.
- 95) 무덕(無德) : 덕이나 덕망이 없다.
- 96) 고독무애(孤獨无涯) :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 끝없이 넓다.
- 97) 설중한매(雪中寒梅) : 눈속에 겨울매화.
- 98) 양류 맹동(萌動) : 버드나무과 버드나무속의 식물이 싹이 남.
- 99) 존고(尊姑) : ‘시어머니(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를 높여 이르는 말.
- 100) 노래자(老萊子) : 중국 24 효자 중의 한 사람. 중국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현인으로 난을 피하여

몽산(蒙山)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70세의 나이에든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 주었다고 전해짐. <노래자> 15편을 지었다고 함.

- 101) 오색반의(五色班衣) : 오색으로 만든 색동저고리.
- 102) 웅보 : 씩씩한 걸음.
- 103) 전후옹위(前後擁衛) : 앞 뒤 좌 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함.
- 104) 진수성찬(珍羞盛饌) :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 105) 대연보결(大宴補缺) : 큰 규모로 벌인 잔치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움.
- 106) 고대당실(高臺堂室) : 높이 쌓은 집과 방.
- 107) 사방청빈(四方請賓) : 동, 서, 남, 북 네곳에서 손님을 청함.
- 108) 외주범사(外周凡事) : 바깥쪽 모든 일.
- 109) 일점혈육(一點血肉) : 자기가 낳은 단 하나의 자녀
- 110) 슬하경사(膝下慶事) :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축하할 만한 기쁜 일.
- 111) 형여생애(刑餘生涯) : 살아 있는 한 평생의 기간중에 지난날 형벌을 받은 적이 있음.
- 112) 범백사(凡百事) :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
- 113) 삼도남매 : 부모를 섬기는 세 가지 효도를 실천하는 오빠와 누이.
- 114) 양등 : 물건값이 뛰어오름.
- 115) 만실중(滿室中) : 방 안에 가득한 가운데.
- 116) 종부(宗婦) :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말머느리를 이른다.
- 117) 행태(行態) : 하는 짓과 몸가짐. 행동(行動)하는 모양(模樣).
- 118) 현철(賢哲) : 어질고 사리에 밝음. 또는 그런 사람.
- 119) 상좌(上座) :윗사람이 앉는 자리
- 120) 좌정(坐定) : 자리 잡아 앉음.
- 121) 고등(高等) : 등급이나 수준, 정도 따위가 높음. 또는 그런 정도.
- 122) 퇴거리 : 턱.
- 123) 시장하다 : 배가 고프다.
- 124) 흥황(興況) : 흥미 있는 상황.
- 125) 황릉몽(皇陵夢) : 황릉몽환기(黃陵夢還記)로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 126) 이비(二妃) : 요(堯)임금의 딸로서 순(舜) 임금의 이비(二妃)가 되었던 아황(娥皇)·여영(女英).
- 127) 소상동정(瀟湘洞庭) : 소상강 동정호.
- 128) 일장(一張) : 거문고 · 가죽 · 종이 따위를 쉰 때에 그 하나를 이르는 말.
- 129) 이십오현(二十五絃) : ‘슬’(瑟)을 달리 이르는 말.
- 130) 월백풍청(月白風清) : 달은 밝고 바람은 선선하다는 뜻으로, 달이 밝은 가을밤의 경치(景致)를 형용(形容)한 말.
- 131) 실솔(蟋蟀) : 귀뚜라미.
- 132) 극락세계(極樂世界) :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